

“가을밤 정취 더한다”...목포 문화유산 야행 팡파르

17-19일 근대역사문화공간서
목포개항 주제 역사·문화 축제
‘모던타임즈’ 뮤지컬 등 ‘풍성’

목포시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7-19일 ‘2025 목포 문화유산 야행(夜行)’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열린다. <포스터>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던타임즈, 목포개항이야기’를 주제로, 근대 개항기의 목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램을 개최한다. 개막 첫날에는 목포의 개항기를 담은 뮤지컬 ‘모던타임즈’가 무대에 올라야행의 서막을 연다. 특히 4·8만세운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개막 주제공연은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감동적인 무대로 관객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근대역사관 2관에서는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 ‘밤, 문화유산 그리고 음악’, 재즈공연 ‘한국의 뉴올리언즈 목포에서 목포재즈쇼를 만나다’, 시대별 명곡으로 구성된 ‘목포 in 랩소디, 시간여행콘서트’ 등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경동성당에서는 목포 무형유산 보유자 박방금·안부덕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명창을



만나다’를 비롯해 고(故) 우봉 이매방의 전통춤 공연, 한국창작무용, 전통무용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또한 성당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와 음악이 어우러진 ‘음악에 물드는 경동의 밤거리’ 공연이 가을밤의 정취를 더한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옥(玉)장 장주원 선생의 해설이 곁들여진 옥공예 시연과 전시가 열리며, 야외 체험존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전래놀이 한마당’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옛 유달주유소 공터에 ‘K-미식존’이 새롭게 조성돼 낙지 등 목포 해산물을 활용한 간편식과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

이다. 이 밖에도 근대역사거리 일원에서는 달빛기행 소원등, 근대 트롤리버스 체험, 경성스타일복장 체험 등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번 야행에는 목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해양권역예담고, 목포문화재단, 보해양조 등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꾸몄다. 조용선 목포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야행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자주적 개항도시로서 목포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작년보다 31% 증가한 8천756t

무안군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산동진’으로 건조벼, 산물벼, 가루쌀을 포함해 2024년산 당초 배정량보다 31% 증가한 8천756t을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수확기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물벼 매입 물량을 전년 대비 1천472t 확대했다. 산물벼는 10월 중순, 가루쌀은 10월 말, 건조벼는 11월 초부터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친환경 벼와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물량은 벼 재배

면적 조정 실적과 전환 실적 점검 등을 거쳐 별도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전국 단일가격으로 적용된다.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 4만원이 지급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광 농업정책과장은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가 제한되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종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모든 농가와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매입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진도군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식

임산부·영유아 부모 맞춤형 복합 공간

진도군이 출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 앞에서 임산부 등 군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복합 공간으로 출산과 육아의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어린이 자동차 놀이시설 ‘도담도담 놀이터’ ▲수유실 ▲맘앤아이 쉼터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산부

터 출산,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부모들 간에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사회의 미래를 여는 원천인 아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완도군 소안면에 공동 빨래방 조성

도 고향사랑기금 공모 선정
취약층 대상 세탁 봉사 제공

완도군은 13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도 고향사랑기금 공모 사업에 ‘소안면 공동 빨래방 조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도비, 군비 등 3천만원을 투입해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봉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반찬 봉사와 안부 살피기 등을 연계한 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완도=윤보현기자

소안면 빨래방은 부녀회 사무실 내에 설치되며 소안면 부녀회와 협의를 통해 세탁물 방문 수거, 세탁·건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 공동 빨래방은 전남도와 시군 공동 협력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청산면과 노화읍에 이어 소안면이 세 번째로 선정돼 전남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마을 공동 빨래방은 단순한 생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이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함평군,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호평

함평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구강보건사업 추진 성과와 정량 지표 달성도,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보건 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실천형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구강 보건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시·군·구 부문 25개 우수기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서는 함평군과 완도군이 선정됐다. 특히 군은 학교와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부터 교육까지 유기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밖에도 시설 내 불소 디스펜서 설치, 구강건강 수첩 배부,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등 군민 참여형 예방 사업을 운영해 자발적 실천 기반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아동 529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잇솔질 교육을 제공해 아동의 올바른



함평군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 주관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했으며, 영화학교 등 15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구강보건실과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며 학령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이동진료서비스 ‘건강드림 행복버스’를 운영하며 총 2천565명의 군민에게도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의치 관리와 잇솔질 교육 등 구강 보건 교육도 병행해 씹는 기능 유지와 구강 관리에도 도움을 줬다.

지난 6월에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574명이 참여한 대규모 캠페인을 열고 잇솔질 교육, 잇솔 교환 행사, 건강퀴즈챌린지 등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상인 함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온 함평군 보건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속 확대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이(齒) 좋은 함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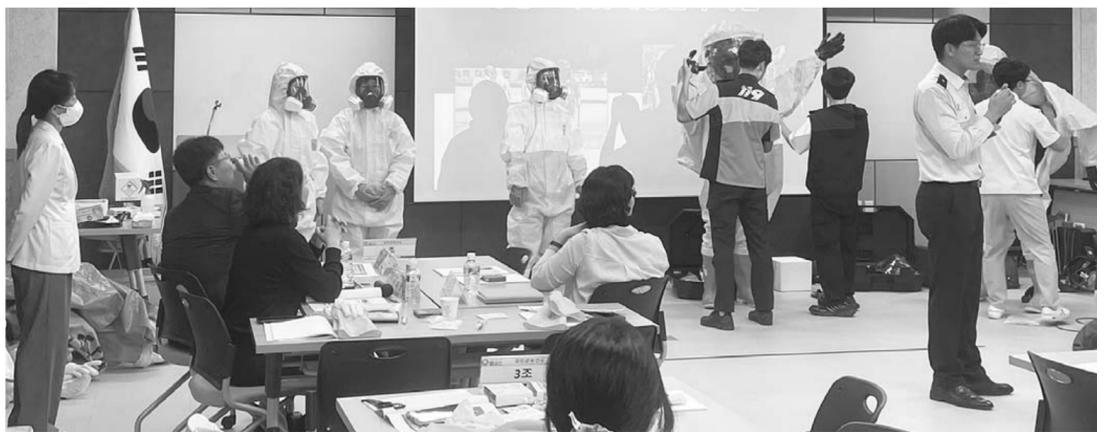
영암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받으세요”

이달 말까지 접수...위생·안전 등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13일 “2025년 하반기 농산물 가공 창업 과정” 교육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과정은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매주 화요일 4시간씩 총

5회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식품 가공 기본부터 위생·안전관리, 관련 법령까지 전반을 다룬다. 농업인의 가공 제품 생산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활용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교육 이후 수료생들이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해 가공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안내는 센터 농촌지원팀(061-470-669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8년 농산물 가공 창업 과정을 시작한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료생 202명을 배출했으며, 교육 이수 후 제품 생산 농가는 11곳이다. /영암=나동호기자



강진군보건소는 최근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생물테러 대응 훈련’ 실시

강진군보건소는 “최근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도 감염병관리과, 강진경찰서, 강진소

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생물테러 대응 이론 교육 ▲개인보호복(레벨 A·C) 착용의 실습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위험구역 설정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씨는 김태문 전남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

관 소방위가 맡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교육을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생물테러 상황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